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형숙^{1*}, 이용직², 이경철³

¹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 ²플로리다대학교 영어교육과, ³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An Exploratory Study of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s

Hyoung-Sook Cho^{1*}, Yong-Jik Lee², Kyung-Cheol Lee³

¹Department of ESOL Education, Seowon University

²ESOL/Bilingual Education, the University of Florida

³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eojeong College

요약 시장개방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교육부는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고찰하고 다문화 교육과정의 개념적 모형에 비추어 그들의 교수목표와 교육내용이 다문화적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4명의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고 사전인터뷰, 수업자료 검토, 수업참관 및 수업참관 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주요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신(배우자)의 출신국 문화를 소개하였으며, 수업은 전통복식, 음식 등 풍습위주의 외형적인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다문화이해교육은 대상 학생 및 문화의 측면에서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2차시 분량의 일회성 수업으로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및 사회적 행위능력을 배양하기 다소 어려웠으며, 교과내용과 연계하여 융합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Due to globalization and the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s, Korea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In 2012,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ed guidelines for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for all K-12 stu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how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s conducted and to provide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Based on the six goals of multicultural curriculum in Bennett's conceptual model, this study explores how multicultural education specialists conduct their instructions and how they convey the value of multicultural understanding in public schools. Four multicultural education specialists were recruited, and various qualitative data were collected from pre- and post-interviews and classroom observations. The data were analyzed through thematic analysis. The study findings show that the participants educated elementary students by introducing their own (or spouse's) culture through their traditional clothes, food, and customs. This indicated that they focused mainly on developing multiple historical perspectives and strengthening intercultural competence. However, their current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may not help students to increase an awareness of the state of the planet and global dynamics, and to build social action skills. Finally, we suggest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integrated and infused into national (regular) curricula so that all students can enhance their multicultural understanding.

Keywords : Multicultural Education,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Specialists, Multicultural Curriculum

*Corresponding Author : Hyoung-Sook Cho(Seowon Univ.)

Tel: +82-43-299-8326 email: hyung030@seowon.ac.kr

Received June 2, 2017

Revised (1st June 19, 2017, 2nd June 28, 2017, 3rd June 30, 2017)

Accepted July 7, 2017

Published July 31, 2017

1. 서론

1.1 다문화 사회 확산과 연구배경

전통적으로 단일민족주의가 강조되던 한국사회는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 노동시장 환경변화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그리고 농촌지역 여성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하여 다문화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1-5]. 행정자치부의 외국인주민 현황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도 기준으로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를 합쳐 239,698명이다[6].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212,826명으로 전체의 88.8%를 차지하고 있다. 결혼이주민의 국적은 중국(조선족 포함)이 38.8%, 베트남이 26.9%, 일본이 8.5%의 분포를 보여 이상의 3개국 출신자가 7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교육부의 2015년 교육기본통계 자료[8]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학생의 총 숫자는 82,536명으로 조사되었다. 다문화 학생이란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국내출생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자녀를 모두 포함한다. 국내 다문화가정자녀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2012년에 46,954명에서 2015년 82,536명으로 증가하였다.

Table 1. Multicultural students in 2012-2015

	Total	Elementary schools	Middle schools	high schools	etc.
2012	46,954	33,740	9,627	3,409	178
2013	55,780	39,360	11,280	4,858	282
2014	67,806	48,225	12,506	6,734	341
2015	82,536	60,162	13,827	8,146	401

국내 학령기 아동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문화 가정자녀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적 배려와 지원이 요구된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민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발달과 한국문화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반면, 한국계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1.2 연구목적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국내출생자녀뿐 아니라 국

제결혼 가정의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까지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선주민과 이들의 사회통합이 절실하다. 이는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이해교육과 다문화 현상에 대한 인식 개선 없이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각 시도 교육청은 매년 「다문화·탈북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학령기의 아동청소년은 학교 교육과정의 일부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접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를 파악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다문화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이 다문화이해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고찰하였다. 나아가,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가의 교육목표와 현장의 교육내용이 사회통합과 상호이해를 위한 다문화적 가치를 잘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이해교육의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2.1 선행연구 검토

다문화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진 것은 2006년 이후의 일이며, 그 중심에 여성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가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2]. 결혼이민자가 국내 교육 시스템 속에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10], 국내 다문화 교육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역할은 이중언어 강사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 크게 나눌 수 있다. 2009년 서울교육대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이중언어 강사들을 양성해왔으며, 최근 이중언어 강사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연구[11-14]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두 번째 교육적 역할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15-16]. 앞으로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강기정(2012)은 전문가 델파이 조사와 초점집단면접(FGI)을 통하여 다문화 전문인력의 개념, 역할 및 다문화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16]. 그는 다문

화이해교육 강사를 “결혼 이민자와 내국인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제공 및 편견의 해소, 상호 이해를 높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p. 161)”이라고 정의하고 있다[16]. 또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은 기존의 법무부에서 지정한 대학과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태라고 제안하였다[16-19].

권오현(2012)은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의 역할을 자국민과 국내 학생들을 위한 역할에 집중하여 설명하면서,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는 문화 차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구성원별로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전문인력(p. 1)”이라고 정의하였다[20]. 더불어 국내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강사 스스로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끊임없이 교수법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이 점차 증가하자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2012)는 「다문화 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모든 학생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21]. 이에 따라 일반학생 대상 상호 이해교육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위학교에서 외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역할 놀이, 봉사활동 등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 다문화 이해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영라와 방기혁(2015)은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이 국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22]. 배려와 협력, 편견해소, 다문화 감수성, 양성평등, 장애이해와 같은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다문화이해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다문화 감수성’ 및 ‘양성 평등의 이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결과[23]에 의하면, 다문화 수용성의 지수는 2011년 평균 51.2점에서 2015년 평균 54.0점으로 다문화 인식이 향상되었다.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 대상별 다문화이해교육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16년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인 ‘다누리 배움터(<http://www.danurischool.kr>)’

를 개설하고[25],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이 문화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이해에 기반을 둔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제와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들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2.2 다문화교육과정 이론

한국보다 앞서 다문화 사회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백인위주의 주류문화를 중심으로 다양한 소수자 문화를 흡수하고자 하는 동화주의적 관점을 취하였다. 이후, 다문화교육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거듭하면서 소수자와 이민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26-27]. 초기 다문화 교육 과정은 언어 문화적 차이에 관심을 두고 이민 자녀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류문화에 화합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28]. 최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나아가 이민자 문화를 강점으로 바라보고 사회정의를 위한 변혁적 입장을 취하는 방향으로 다문화 교육의 초점이 달라짐에 따라 다문화 교육과정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Fig. 1. Bennett's conceptual model of a comprehensive multicultural curriculum

다문화 교육 및 다문화 교육과정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Banks, Sleeter와 Grant 등과 더불어 다문화교육과정 모형을 대표하고 있는 Bennett

의 이론을 본 연구의 이론적 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Bennett의 다문화교육과정 모형은 핵심 가치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분석하는 틀로 적절하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Bennett(2007)[27]가 제시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핵심 가치는 지구 공동체에 대한 책임, 지구 환경 존중, 문화 다양성 존중 및 보편적 인권 존중으로 구성되며, 이런 핵심가치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6가지 목표를 추구한다. 첫째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이해함 (to understand multiple historical perspectives)으로써 주류집단의 고정된 가치관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것이다. 다양한 역사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 집단의 영웅, 역사적 사건, 음식, 축제와 같은 피상적인 주제를 넘어서야 한다. 둘째 목표인 문화적 민감성 함양(to strengthen cultural consciousness)은 자문화 중심주의를 지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셋째 목표는 상호 문화적 역량을 배양(to strengthen intercultural competence)하는 것이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과 서로 공감하고 몸짓, 표정 등 상징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넷째 목표는 인종차별, 성차별 등 모든 형태의 편견과 차별에 대해 투쟁(to combat racism, sexism, and other forms of prejudice and discrimination)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백인 대 유색인, 노동자 대 관리자와 같은 단순 이분법적 논리로 접근하지 않도록 설득한다. 다섯째 목표인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배양(to increase awareness of the state of the planet and global dynamics)은 지구의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개인의 결정이 전 지구적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는데 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목표는 사회적 행위능력 향상(to build social action skills)이다. 이는 세계시민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며, 사회변혁을 위한 행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Bennett의 모형은 다문화적인 핵심 가치들을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과정의 목표를 세분화해서 제시하고 있어,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을 이해하는 이론적 틀로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참여자

다문화이해교육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해 2015년 봄 학기부터 연구진은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섭외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를 섭외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 ②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으며,
- ③ 최소 1년 이상 강의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만나기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의 자조모임을 소개받아 찾아갔고 스노우 볼링 샘플링(snowballing sampling)을 통해 참여자를 확보하였다. 이후, 학력인정 다문화 위탁교육기관 운영자를 통해 학부모를 소개받았고 그 중 한 명이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여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였다.

Table 2. Basic information of study participants

Name	Country	Gender	Teaching	etc.
Megumi	Japan	F	3 yrs	Marriage Immigrant
Nguyen	Vietnam	F	3 yrs	Marriage Immigrant
Yombi	Congo	F	3 yrs	Refugee
Jung Minju	Korea	F	3 yrs	Married to a Jordanian

이상과 같은 과정을 거쳐 총 여섯 명의 연구 참여자로 시작하였으나, 연구 진행과정에서 사후 인터뷰를 하지 못한 두 명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네 명이 남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중 세 명은 시도 교육청에서, 나머지 한 명은 교육대학에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했다. 양성과정을 수료한 후, 네 명의 연구 참여자는 학교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특이하게도 연구 참여자 모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한 지 3년이 되었는데 이는 다문화 정책의 주관부서인 여성가족부 및 교육부를 통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를 양성하게 양성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의 정책과 맞물린 것으로 판단된다.

3.2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연구 참여자를 확보한 후, 연구진은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참관과 인터뷰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연구 참가와 수업참관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고, 수업을 참관하기 전 사전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수업참관 이후, 사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수업을 참관하기 전에 수업소개 자료 및 수업시간에 사용할 유인물 등을 미리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절차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인터뷰 녹음자료, 인터뷰 전사자료, 수업자료, 수업하는 장면 사진, 수업참관 현장노트 등을 포함하였다.

Table 3. Procedure of data collection

#	Collection method	Preparation for data collection	Collected data
1	Pre-Interview	Setting pre-interview protocol	Interview recordings, interview transcripts
2	Collection of Instructional Materials	Reviewing instructional material	Instructional Materials, handouts
3	Class Observation	Setting observation protocol	pictures, observation notes
4	Post-Interview	Setting post-interview protocol	Interview recordings, interview transcripts

연구 참여자 연구진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사전 인터뷰 프로토콜과 사후 인터뷰 프로토콜을 수립하였다. 사전 인터뷰는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된 목적, 다문화이해교육의 수업목표, 자신이 이수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의 효과성,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서 어려운 점과 전반적인 의견을 질문하였다. 수업을 참관하고 난 후 실시한 사후 인터뷰는 참관한 그날 수업의 목표, 교수방법 및 해당 수업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한 대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수업참관을 하기 전에 수업참관을 위한 프로토콜을 준비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를 수집하는 지침으로 삼았다. 참관 프로토콜에는 수업참관 시 대상 학생은 누구인지, 교수 내용은 무엇인지, 수업자료 및 교수 방법은 어떠한지, 학습자의 반응 및 참여도는 어떠한지, 근로 환경은 어떠한지를 주요내용으로 포함시켰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관찰하여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듣고 실제 다문화이해 수업 참관을 통해 수업목표

와 교수방법 등을 파악하였고, 수업을 마친 후에는 현장에서 이루어진 개별 수업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사전 인터뷰, 수업참관 및 사후 인터뷰라는 과정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고, 중간에 수업참관 후 사후 인터뷰를 하지 못한 연구 참여자의 자료는 제외되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 중 인터뷰 녹음자료는 전사되었고 참관 프로토콜에 따라 관찰된 참관 노트도 참관 이후에 분석을 위하여 워드파일로 재작성 되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뷰 자료, 실제수업 장면 사진, 참관 노트 등 다양한 형태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고 노력하였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의 관점을 반영하는 인터뷰 자료와 실제 수업 참관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주요 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삼각검증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수집된 자료에서 범주화되고 추출된 주요 주제들(themes)은 연구진 회의를 거쳐 1차 확정하였고 2016년 봄 국제학술대회에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후 보완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사전-사후 인터뷰로 부터의 연구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여성이었으며, 외국인 출신 배우자가 있거나, 결혼이민자 및 난민 인정자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량을 가지고 있었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된 목적에 대해서 베트남계 결혼 이민자인 응우옌 씨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을 없애고 인식을 개선하고 싶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참여자들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아프리카에 대해 나쁜 이미지 너무 많아요. 아프리카 하면 사막 이랑 사자만 생각해요. 아프리카에서 나는 사자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욘바이씨, 사전 인터뷰)

수업을 하고 나면 정말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같아요. 지금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만 회사에 가서 어른을 대상으로 하고 싶어요. 해야 해요. (욘바이씨, 사전 인터뷰)

우리 집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역사시간에 일본에 대해 나쁘게 배우고 있어서 다른 측면도 가르치고 싶었어요. 일본에 대해 좋은 점도 많은데, 나쁜 것만 가르치니까 내가 좋은 점을 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메구미씨, 사전 인터뷰)

다문화이해교육은 못사는 나라를 이해해주는 교육이라는 편견이 아이들 사이에 있으니까 그걸 좀 바꾸고 싶어요. (응우옌씨, 사후 인터뷰)

난민 인정자인 욘바이씨는 본래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강사였지만 아프리카계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에 대해 실망하였고,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싶어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일을 시작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계 결혼 이민자인 메구미씨는 역사와 사회 과목에서 한-일관계를 배우면서 아이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이 일본계 혼혈이라는 점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녀들을 위해 일본과 일본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르쳐 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반면 요르단계 남편과 결혼한 정민주씨는 자신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국사람들은 다문화라고 하면 영국, 미국 아니면 다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남편이 요르단 출신이라고 하면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학교에서 다문화 수업하면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어서.....(정민주, 사전 인터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된 이유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에 대해 한국인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다양성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알려주고 싶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들은 그들이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하는 다문화이해교육의 교수목적과 연계되어 나타났다.

수업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는 것, 그래서 다문화에 대해 인식이 좋아지는 것이 목표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 그런 거. (응우옌씨, 사후 인터뷰)

일본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일관계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목표예요. (메구미씨, 사후 인터뷰)

요르단에 대해 잘 모르니까 요르단의 위치, 문화 그런 거 설명하고 아랍식 인사법 이런거 설명하면서 히잡도 써보고. 아랍인과 히잡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정민주씨, 사후 인터뷰)

이상과 같이 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출신국의 문화를 가르치면서 다문화 이해도를 높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요르단계 남편과 결혼한 정민주씨는 자신의 출신국인 한국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출신국 문화를 소개하고 아랍문화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를 원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모두 대학이나 교육청을 통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였고, 그들이 이수한 양성과정 프로그램이 실제 자신들의 교수활동에도 도움이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전 컴퓨터를 잘 못했는데 파워포인트, 엑셀 이런 컴퓨터 스킬을 배운 게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컴퓨터 기술을 배우고 익숙해지니까 검색하고 수업자료를 만들 때 도움이 돼요. (메구미씨, 사후 인터뷰)

저는 교수법을 배운 게 가장 도움이 되었어요. 교육학을 배운 사람들은 교수법이 쉽지만 나는 교수법이 도움이 되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이제 수업을 하다보니까 아하 그때 그 말이 이 말 이구나 그게 그 뜻이었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되요. (응우옌씨, 사전 인터뷰)

OO교육청에서 배운 교육 내용이 내가 수업을 위해 콘텐츠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가이드라인처럼.....(욘바이씨, 사전 인터뷰)

이상과 같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에서 배운 내용이 현재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위한 교수설계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교수법은 배웠지만, 초중고에 따로따로 차별화된 교수법이 없어. 가이드라인이 없어 초등학생, 중학생 다 달라 초중고에 맞게 가르치고 싶은데 그런데 교수방법을 다르게 배우지 않아서.....(응우옌씨, 사후 인터뷰)

외국인 엄마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양성과정에서 강의하는 강사의 말이 너무 빨라서 비원어민인 결혼이주여성들이 모두 다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중국인 엄마들이 아주 많이 등록했는데 다 알아 듣지를 못하더라고요. 중국인 보조강사가 투입되어 통역을 하면서 수업이 진행되면 좋았을 텐데 아쉽죠. (정민주씨, 사전 인터뷰)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비전공자가 가르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믿을 수 없죠. 이론만 하는 수업은 도움이 안 되

기도 하고 강사가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불편한 말을 해서 중국계 엄마들이 화가 많이 나기도 했어요. (정민주씨, 사전 인터뷰)

교육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참여자들에게 다문화이해 교육 강사 양성과정 수업은 수업자료 작성, 콘텐츠 개발 및 교수방법 이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대상별 차별화된 교수법을 제시해 주지 못했다는 점과 더불어 양성과정을 진행했던 강사들이 문화-언어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제로 실시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실 경영(classroom management)를 꼽았다.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고 포기하는 경우,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워요. 담임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수업을 진행할 때 선생님이 뒤에서 서 있어서 주거나, 수업 중 필요할 때 도와주거나 같이 할 때는 아이들이 그러지 않는데.....(응우옌씨, 사전 인터뷰)

내가 수업할 때 담임교사가 없으면 수업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때 힘들어요. 담임교사의 한국어 지지가 있어야 하고 우리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하나의 교육으로 자리잡아. (욘바이씨, 사전 인터뷰)

자는 아이들 깨우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액티비티 위주로 하고 있어요. 잠 안 재우려고 움직이게 해야 해요.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슨 수업을 원하는지 요구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메구미씨, 사후 인터뷰)

이뿐만 아니라,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이미 문화인종적 편견에 빠져 있기 때문에 수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다문화하면 못사는 나라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다문화 이해수업을 하는데 내용 전달이 참 어려워요. (메구미씨, 사후 인터뷰)

피부색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나의 피부색 때문에 유치원에서 수업하면 유치원생이 울어요. (욘바이씨, 사후 인터뷰)

니네 나라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슬퍼.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슬퍼. (욘바이씨, 사후 인터뷰)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어도 수업이 어려워요. 편견이 있어서. 다문화는 불쌍한 사람 혹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

서. 내가 힘을 내야지 하면서도 그런 눈빛을 만나면 주눅이 들고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대상 수업은 안 해요. (정민주씨, 사전 인터뷰)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은 담임교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교실을 경영하는 것이 어렵고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과 학생들의 문화 인종적 편견으로 수업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4.2 수업참관으로부터의 연구결과



수업참관을 위해 연구진은 수업을 참관하기 전에 요청하여 검토한 후 참관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동의를 구하고 수업시연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수업은 사전에 설계한 프로토콜에 따라 수업 대상학생, 교육내용, 교수자료, 학습자의 반응 및 교수환경이라는 다섯 가지 측면에서 관찰되고 분석되었다.

먼저, 연구 참가자들 모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에서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도록 배웠다고 하였으나, 연구진이 참관한 수업은 모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연구 참가자들도 초등학교에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을 해달라는 의뢰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수업참관은 연구 참여자별로 각 1회씩이었으며, 수업은 1회 진행될 때마다 2차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3-4교시 혹은 5-6교시에 수업이 진행되었다.

교육내용은 자신과 관련된 국가(대부분 출신국)에 대한 소개와 해당 문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교육자료로는 전통복식, 음식, 전통 노래와 민속놀이 등이었다. 베트남계 결혼이민자인 응우옌씨의 수업은 베트남의 지리적 위치와 간략한 역사를 설명하고 이후, 베트남 모자와 전통 복식을 체험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일본계 결혼이민자인 메구미씨의 수업은 일본 만화, 일본 노래를 배우고 요요체험과 일본 전통의상 입어보기 등의 활동으로 구성되었다(Table 4). 콩고 출신 난민 인정자인 욘바이씨의 수업은 콩고의 위치와 콩고 문화를 간략히 소개하고 콩고의 전통복식을 입어보는 활동으로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요르단계 남편과 결혼한 정민주씨는 요르단의 위치와 역사를 가르쳤고 현재 요르단 왕비의 국제적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배운 내용을 학습지로 구성하고 아랍여성들의 히잡(hijab)을 써볼 기회를 주고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삼삼오오 모여앉아 대추야자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상과 같이 진행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전반부에서 일본, 베트남, 콩고 및 요르단에 관한 개관을 진행할 때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수업에 임하였고, 이후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민속놀이 및 민속의상을 체험하면서 즐겁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체험을 통한 다문화 이해수업이라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Table 4. Classroom activities of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Class	Megumi's class	Nguyen's class
Activity	Trying Japanese traditional clothes	Trying Vietnamese traditional clothes
Picture		

이상과 같이 진행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에 참가한 초등학생들은 전반부 일본, 베트남, 콩고 및 요르단에 관한 개관을 진행할 때는 호기심어린 눈으로 수업에 임하였고, 이후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민속놀이 및 민속의상을 체험하면서 즐겁고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체험을 통한 다문화 이해수업이라 어렵지 않게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의 교수환경은 다소 열악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은 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아니므로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은 1회성(40분씩 2차시 연속 수업)으로 설계되고 1회성 특별수업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수업 의뢰가 들어오면 전통복식 및 음식 등 수업자료를 준비하여 트렁크를 끌고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2차시 분량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일찍 도착할 경우, 머물 공간이 없을 때도 있고 식사 시간과 맞물릴 경우, 식사할 공간이 없어서 식사를 건너 뛰기도 했다.

5. 논의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ennett(2007)는 다양한 역

사적 관점의 이해, 문화적 민감성 함양, 상호 문화적 역량 배양, 편견 및 차별과의 투쟁,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배양 및 사회적 행위능력 향상을 다문화 교육과정의 6가지 목표로 보았다[27]. 다문화이해교육에 관한 본 연구의 결과를 Bennett의 다문화교육과정 이론에 따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Bennett이 주장한 다문화 교육과정의 첫 번째 목표인 ‘다양한 역사적 관점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볼 때[27], 연구 참가자의 다문화이해교육은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생각할 거리를 준다고 할 수 있다. 4명의 연구 참여자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은 강사의 출신국 혹은 강사의 배우자의 출신국 문화를 이용하여 한국적 관점에 새로운 관점을 더하고 있다. 한국 문화에 익숙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각 일본, 베트남, 콩고 및 요르단의 지리와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 Bennett[27]이 세 번째 목표로 설정한 ‘상호문화적 역량 배양’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 수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역사적 관점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는 다소 부족할 뿐 아니라,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및 국제결혼을 한 한국인 배우자를 특정 국가와 단순 연결시키고 있었다. 이는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다문화 교육과정의 핵심가치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다문화이해교육의 콘텐츠를 개발할 때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가들이 좀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둘째, Bennett는 ‘편견 및 차별과의 투쟁’을 다문화 교육과정의 네 번째 목표로 설정하였는데[27], 본 연구의 참여자 네 명 모두 한국인의 편견에 절망한 경험이 있으며, 한국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계 결혼이민자는 일본의 만화, 캐릭터 등을 이용하여 일본 문화의 긍정적인 측면을, 베트남계 결혼이민자와 콩고계 난민 인정자도 베트남과 아프리카 문화에서 독특한 문화적 자산을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한국계 정민주씨도 아랍의 히잡문화가 자연환경 및 역사를 통해 합리적 결과물임을 설명하고 대추야자 등 아랍의 맛있는 음식으로 호기심을 유발함으로써 무슬림과 아랍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이해교육이 풍습위주의 외형적인 문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Banks(2010)는 기존의 교육과정에 문화의 피상적인 부분을 추가하여 다루는 수업은 낮은 수

준의 다문화 교육이라고 보았다[29]. 또한, Erickson(2009)은 ‘보이지 않는 문화’보다는 ‘보이는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다문화 교육과정에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30]. 그런 측면에서 본 연구를 위해 참관한 다문화이해 수업에서 ‘문화적 민감성 함양’ 및 ‘상호문화적 역량 배양’이라는 교수목표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통의상 및 음식 등을 통해 해당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넷째, Bennett는 ‘세계적 상황에 대한 공감능력 배양’과 ‘사회적 행위능력 향상’을 다문화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지만[27], 연구진이 참관한 수업에서 세계적 상황을 지구적 연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거나 사회 정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 움직임은 찾기 어려웠다. 또한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이 편견과 투쟁하려는 의지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한국인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싶어 했지만, 학생들이 지구적 연대감을 느끼고 사회문제에 대해 사회적 행위를 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는 2차시로 구성된 1회성 수업으로는 부족해 보였다. 학교에 소속된 정식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문화이해교육 강사가 다문화이해교육 수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하기도 쉽지 않다.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와야 수업을 설계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내용과 연계되어 융합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키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의 실체를 다문화이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강사와의 인터뷰 및 수업참관 등을 통해 살펴보고 Bennett의 다문화 교육과정의 목표에 따라 논의해 보았다. 더 나아가, 학령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향후 다문화이해교육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다문화이해교육의 목표를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알려주고 차별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외국문화를 소개하는 것과 차별화되어야 하며, 외국문화의 이색적인 측면이 강조되거나 음식과 전통복식 등에 국한된 문화 수업에서 일보 전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이해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통해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문화 이해교육 강사에 대해 보

수교육을 실시할 때, 초·중등 학생별 차별화된 교수법, 다문화 교육의 핵심가치와 목표,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융합할 수 있는 다문화 콘텐츠 개발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기 전, 학교 교사와 교실 경영과 수업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필요할 경우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들이 학교의 정식 교원이 아닐뿐더러, 다문화 교육이 가난한 이방의 나라에 대한 수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도 있어 수업 진행 시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다문화이해교육 강사와 학교의 교사가 함께 수업을 진행하거나, 교사도 수업에 참가하여 해당 내용을 파악한 뒤, 이후 수업에서 연계하여 가르침으로써 교과 융합을 이룰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진 다문화 이해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유·초·중등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다문화이해교육을 전체적으로 통찰하기는 다소 부족하다. 추후 연구를 위해서는 유치원 및 중등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문화이해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연구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문화이해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수업을 참관하였고, 강사의 목소리와 현장의 모습을 포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 다문화이해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섭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다문화이해교육에 대한 학교의 요구를 고찰하거나 외부강사에 의한 다문화 수업을 학교 교육과정에 융합하는 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력 및 유학생의 유입 등으로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외국인 주민이 가져다주는 편익은 늘이고 통합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이해교육은 다음세대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다문화이해교육이 성공적일 때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 줄어들고 다문화적 가치가 다음 세대에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1] Y. K. Kim, A. J. Cho, H. M. Choi, J. Y. Lee, "Welfare Policies in Multicultural Era: for multicultural famili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8.

- [2] J. M. Hwang, "Multicultural Education without Multicultural Citizen -An Analysis of Policy Agenda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Discourse* 201, vol. 13, no. 2, pp. 93-123, 2010.
- [3] MyungHee Kim, "A Case Analysis and Policy Sugges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tion of Vietnam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productio,"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4, pp. 453-463, Aug.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08.57>
- [4] Kwangsoo Kim, "A Quantitative Study on Acculturation of Female Immigrants by Marriage in Kore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6, pp. 651-660, Jun.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6.77>
- [5] Rack-In Choi, "Aesthetics on Hallyu of Identity and Hybridity - focus on through Homi Bhabha's Hybridity Theory and Edward Said's Orientalis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2, pp. 393-402, Dec.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2.11>
- [6] Ministry of the Interior, "2015 statistic on foreign residents", 2015, Available From: http://www.moi.go.kr/f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MSMSTR_00000000014&ntId=46327. (accessed Aug 5, 2016)
- [7] Statistics Korea, "National Index System", 2015,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819. (accessed Aug 5, 2016)
- [8] Ministry of Education, "Statistics of 2015 educational database", 2015,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10¤tPage=0&encodeYn=N&boardSeq=60423&mode=view>. (accessed Aug 05, 2016)
- [9] H. S. Kim, "Migrant Brides and Making of a Multicultural Society Sociological Approach to Recent Discourse on "Multicultural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2, no. 2, pp. 1-36, 2008.
- [10] M. J. Kim, Y. J. Kim, J. A. Jung, "Korean adaptation experience family life in multicultural wome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3, pp. 155-163, 2015.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5.06.07>
- [11] J. H. Kang, J. S. Jeon, "Multicultural Education Experiences of Bilingual Teachers of the Primary School in Seoul and It's Implications", *Kor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vol. 30, no. 3, pp. 1-19, 2014.
DOI: <https://doi.org/10.14333/KJTE.2014.30.3.1>
- [12] S. R. Yoon, "Finding effective ways of teaching bilingual languag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vol. 3, no. 2, pp. 75-102, 2012.
- [13] Jia Chen, Hai-Ying Huang, Research trends of bilingual education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ed on foreigner parent's language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0, pp. 107-120, Oct.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0.32>
- [14] Soyoung Lee, Sangcheol Kwon, Seong Baeg Kim, Mi-Gyeong Yeum, The Global-Multicultural Education with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rough Exploratory Cases of Local-based Global and Multicultural Educ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1, pp. 885-895, Jan.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01.72>
- [15] K. J. Kang, H. M. Byeon, "The Study of Curriculum Development for a Multicultural Service Professional", Center for multicultural Korea, 2010.
- [16] K. J. Kang, "The Study of Curriculum Development for a Multicultural Service Professional",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 17, no. 2, pp. 153-168, 2012.
- [17] Haewon Byeon, Sung-Hyoun Cho, "The Factors that Affects the Experience of Depressive symptom in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ies Using QUEST Algorithm",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5, no. 6, pp. 67-76, Dec. 2015.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5.12.02>
- [18] Heejin Lee, Jinhee Kim,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Educational Condition from Cultural Diversity Perspectiv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 pp. 281-288, Jan.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01.39>
- [19] Jihye Lim, Bongsu Park,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 Program for Local Childcare Communit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2, pp. 263-270, Dec. 2016.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6.12.53>
- [20] O. H. Kwon, "Increasing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Instructors", *Multicultural Research and Practice*, vol 4, pp. 1-20, 2012.
- [21] Ministry of Education, "Educational innovation for education for multicultural students", 2012,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web/100068/ko/board/view.do?bbsId=343&boardSeq=28307&mode=view>, (accessed Aug, 5, 2016)
- [22] Y. R. Song, K. H. Bang, "Development and Effect Analysis of Creative Activity Program for Multicultural Comprehension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s", *Journal of Korean Practical Arts Education*, vol. 21, no. 3, pp. 115-130, 2015.
DOI: <https://doi.org/10.17055/jpaer.2015.21.3.115>
- [23] S. S. Ahn, Y. S. Kim, K. H. Ma, H. Y. Moon, M. J. Lee, "The 2015 study o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The Ministry of Gender Equity & Family, 2015.
- [24] Ministry of Gender Equity & Family, "Support for children in multicultural family policy", 2016, Available From: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bid=24&idx=701815. (accessed Aug 5, 2016)
- [25] Ministry of Gender Equity & Family, "To open Danuri,

an online website for education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2016, Available From: <http://www.moe.go.kr/web/100026/ko/board/view.do?bbsId=294&pageSize=10¤tPage=0&encodeYn=N&boardSeq=60423&mode=view>. (accessed Aug 5, 2016)

- [26] J. A. Banks,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4th edi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2008.
- [27] C. Bennett,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6th edition). Boston: Pearson. 2007.
- [28] C. E. Sleeter, C. Grant, “Making a choice for multicultural education: Five approaches to race, class, and gender”, New York: Wiley. 2006.
- [29] J. A. Banks, C. A. M. Banks (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7th edition)” pp. 233-258, Hoboken, NJ: Wiley, 2010.
- [30] F. Erickson, “Culture in society and in educational practices”, In J. A. Banks, C. A. M. Banks (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and perspective(7th edition)”, pp. 33-58, Hoboken, NJ: Wiley, 2009.

이 경 철(Kyung-Cheol Lee)

[종신회원]



- 2006년 2월 : 국립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6년 2월 :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2010년 2월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사회복지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서정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평가, 교육, 보육, 경영, 복지의 산학협력 및 융합

조 형 숙(Hyoung-Sook Cho)

[정회원]



- 2004년 5월 : 미국 조지아대학교 이민자언어교육 (교육학석사)
- 2015년 5월 :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Curriculum & Instruction (박사)
- 2016년 2월 ~ 2016년 8월 : 여성가족개발원 다문화정책연구원
- 2017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관심분야>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 교육, ESOL

이 용 직(KYong-Jik Lee)

[정회원]



- 2009년 2월 : 중앙대학교 영어학과 (학사)
- 2012년 5월 : 미국 인디애나주립대학교 테솔 (석사)
- 2014년 8월 ~ 현재 :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ESOL 및 이중언어교육 (박사과정 중)

<관심분야>

이중언어 교육, ESL, 거꾸로 교실, 예비교사 교육